

## 김윤덕 장관, APEC 정상회의 대비 교통분야 준비상황 현장 점검

- 김해공항, 경주역 등 주요 교통거점 점검 및 현장 관계자 노고 치하

□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9월 5일 오후 APEC 정상회의(10월말 개최 예정)를 대비하여 김해공항, 경주역, 고속도로·국도 시설정비 현황 등 교통 및 도로 인프라 준비현황을 점검하였다.

○ 이번 현장 점검은 APEC 정상회의 기간 세계 주요 정상 및 대표단, 주요 경제인 등의 방한 시 입·출국 경로별\* 준비상황, 혼잡도 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하였다.

\* (주요 예상경로) ① 김해공항 → 회의장(경주 화백센터)  
② 인천공항 → 서울역 → 경주역 → 회의장(경주 화백센터)

□ 먼저, 김해국제공항을 찾은 김 장관은 현장 직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그간의 노고를 격려한 후 출입국 이동 동선, 주기장 현황, 공항 내 안내계획, 국제선 제2출국장 공사 현장(9월 완공 예정) 등 시설 내 세부 사항을 살펴보았다.

○ 현장에서 김 장관은 “공항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맞이하는 첫인상이므로 매우 중요하다”라고 강조하면서, “국토부, 공항공사, 공군이 협업하여 남은기간 편리한 서비스와 안전 운영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”고 당부하였다.

□ 이후 경주역으로 이동하면서 고속도로 및 국도 시설 정비 현황을 점검한 후 경주역에서 역사 내 화장실, 엘리베이터 등 시설 개량, 대합실 내 참가자 안내계획, 정상급 차량 이용 시 준비 현황 등을 점검하였다.

- 현장 점검을 마친 김 장관은 "항공, 철도, 도로 등 주요 시설의 개량과 보수작업이 9월까지 마무리되도록 해 줄 것"을 요청하면서,
- "행사 준비는 기본으로 하면서도,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세심히 챙겨달라"고 당부하였다.

담당 부서	국토교통부 교통정책총괄과	책임자	과 장	배석주 (044-201-4166)
		담당자	서기관	배윤형 (044-201-3791)
		주무관	주무관	배성준 (044-201-3794)

